

‘참 좋은 순창에서 웃어요’

순창 옥천골미술관서 내일부터 팝아티스트 피터오 초대전 열려

팝아티스트 피터오(Peter Oh) 초대전이 내일부터 3월 31일까지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린다.

참 좋은 순창에서 웃어요!(Make A Smile In Sunchang)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스마일팝아트 작품으로 현대미술을 접목한 전통도자기와 전각작품도 전시한다.

또 순창고추장 고추균으로 발효한 순창발효커피를 디자인한 작품과 순창수제맥주 디자인도 엿볼 수 있다.

2월 15일에는 음악감독 조우리(전남대) 교수를 비롯한 바이올린 이준성, 호른 김옥길, 첼로 최승욱 등으로 구성된 순창 웃음(Smile) 오케스트라 공연도 열린다.

“우리 아이들을 웃게 하고 싶다”는 취지로 시작한 피터오 작가는 전시회를 통해 웃음, 사랑, 행복을 전달해 순창군민 전체가 웃음바이러스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피터오 작가는 “태어나고 자란 순창에서 예술적 감성을 키웠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면서 “순창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적으로 접해보지 못한 현대미술 팝아트와 영상디지털 아트, 도자기 팝아트, 클래식 연주 앙상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고 싶다.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해 순수한 감성을 예술적으로 접목시키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터오 작가는 현대미술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회는 원작이 아닌 프린팅 팝아트 작품으로 전시하고, 이 작품들을 인테리에 소품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피터오 전시작품들.

특히 작품판매 수익금은 순창군 아이들의 예술교육 지원금으로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혀 의미를 더한다.

이는 피터오 자신이 어렸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 콩쿨 1위의 기억을 떠올리며, 힘들게 예술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웃음”을 주제로 한 미술 및 문화작품으로 주목받는 피터오 작가는 순창 적성면 대신리 출신으로 지난 2015년 현대미술 대표작가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웃음을 전달하는 에세이 책 ‘SMILE

WEEK’가 있다.

한편,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금과 송정마을 앞 대형옥외광고관은 ‘피터오’ 작가의 웃음시리즈 중 하나로 바쁘게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참 좋은 순창에서 웃어요!’ 문구와 함께 순창을 지나는 운전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웃음을 통해 행복을 전하고, ‘순창이 참 좋다’ 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순창=이원형 기자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개막 3주 연기... “투자 사기 탕”

동명 TV드라마가 원작인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연출 노우성)가 개막을 3주 연기했다.

공연제작사 수키컴퍼니에 따르면, 7일 서울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초연할 예정이던 이 뮤지컬은 개막을 3월 1일로 미뤘다.

수키컴퍼니 변숙희 대표는 “공연계의 비일비재한 투자 사기로 인해 또 하나의 새로운 제작사와 작품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록 2년간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무대에 올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여명의 눈동자’를 선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땀땀 땀땀했다”고 덧붙였다.

수키컴퍼니는 투자사가 약속한 투자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면서, 배우에게 출연료를 제

시하지 못하는 등 캐스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뮤지컬 제작 사실을 알린 ‘여명의 눈동자’는 MBC TV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1991~1992)를 방송 27년 만에 뮤지컬로 옮긴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작가 김성중의 소설이 원작인 ‘여명의 눈동자’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드라마의 원조로 통한다. 방송 당시 58.4%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혼란기를 거쳐 6·25동란에 이르는 역사를 세밀하게 담아낸 시대극이다. 최재성, 채시라, 박상원, 고현정 등이 나왔다. /뉴시스



진안군이 지난 8일 남부 마이산 주변 유적지 정비를 마쳤다.

“마이산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의 숨결 느껴 보세요”

비례물동·대한건곤청구일월·주필대·이산묘 등 주변 유적지 정비 완료

진안군은 지난 8일 남부 마이산 주변 유적지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남부 마이산 주변에는 주차장 입구 오른쪽에 위치한 이산묘를 비롯한 용바위, 비례물동, 대한건곤청구일월, 주필대 등 역사 유적지들이 많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 국비와 전북도 동부권발전회계 도·군비를 포함해 총 10억 원을 들여 마이산남부 주변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지를 살필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이산묘, 금당사 주변 이동 동선을 정비했다.

이산묘는 단군, 태조 이성계, 세종, 고종을 비롯해 을사년 이후 순국한 의사·열사 및 조선의 명현들을 포함한 79위를 배향한 국내 최대의 사당으로 2004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120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주변에는 호남 의병 창의 동맹단의 집결지이며 고천제를 행하던 ‘용바위’가 있다. 태조 이성계가 장군 시절 운봉에서 왜구를 무

찌르고 개선하는 길에 들렀던 ‘주필대’라 새겨진 암벽과 고종황제가 내린 어필인 ‘비례물동’, 백범 김구선생의 친필을 각자한 ‘대한건곤청구일월’ 등이 새겨진 암벽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탐영제수변공원에 다양한 방향에서 마이산과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부력식 수변데크와 부유분수 6개소, 데크 조명을 설치하고 인도 정비 등을 완료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마이산남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계절과 주야에 관계없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간조명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유적지 정비로 관광객에게 역사문화 현장 학습 공간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마이산과 주변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마이산을 세계 제1의 관광지로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소년을 위한 국악관현악 입문’ 영상으로 즐기세요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이 국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상 콘텐츠 ‘청소년을 위한 국악관현악 입문’을 공개했다.

익숙한 전래동요 ‘채야채야’를 모티브로 삼은 영상이다. 악기별 독주, 합주 등 다양한 형태로 국악기의 음색과 연주 방법을 소개한다. 현악기군, 관악기군, 타악기군 등으로 나눠 비슷한 음색을 지닌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도 따로 감상할 수 있다.

국악관현악 교육 영상자료는 1996년 교과서 속 국악관현악을 알아보는 내용을 시각화한 자료로 제작, 교육 현장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화질과 음질이 노후해 국립국악원이 올해 HD 화질과 선명한 음질로 새롭게 제작했다.

국악관현악 연주는 계성원 창작악단 예술감독의 지휘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들이 참여했다. 영상 속에서 사회는 소리꾼 장서운이 맡았다. 38개의 국악기와 삼현육각, 병주(이중주), 세악(실내악) 등 장면별 의미를 설명해 국악관현악의 이해를 돕는다.

국립국악원은 “총 37분으로 구성된 이번 영상을 통해 국악 관현악의 지리 배치와 악기 구성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편종, 편경, 운라, 박 등의 음색도 감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영상은 국악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국악 교육 자료는 물론 평소 국악관현악을 즐기고 싶은 일반인



들에게도 국악관현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상은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 소셜 미디어와, 홈페이지,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